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2년 8월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19 No.3, 383-391 August, 2012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83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김경희[1] · 장선옥[2] · 강현숙[3] · 김금순[4] · 김종임[5] · 김화순[6]
박진희[7] · 엄미란[8] · 원종순[9] · 윤미선[10] · 이옥철[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기본간호학은 간호사 국가고시의 필수과목으로서 간호학에 입문한 학생이 간호학의 기본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임상 실무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의 기본개념과 이론적인 원리 및 기본간호술을 주요내용으로 다루는 간호학의 분과학문이다(Sohng et al., 2008). 이러한 기본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1982년도에 창설된 기본간호학회는 기본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기본간호학의 학술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기본간호학회지는 지식체 구축의 장으로서 기본간호학의 이론적 지식체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본간호학회지는 199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연 2회 발간되어 오다가 1999년부터 연 3회로 증간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간호연구 논문에 힘입어 연 4회로 2007년도부터 학회지를 발간해 오는 등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Sohng et al., 2008). 더욱이 2005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고 2008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 2012년 6월 CINAL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인 학술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간호학은 간호교육의 핵심과목으로 교육부분에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던 것에 반해 기본간호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져왔다. 개별 분과학문의 지식체 개발 및 축적은 연구-이론-실무 영역의 지속적인 회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아가 학문의 영역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는데(Shin et al., 2010) 이를 위해서는 축적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및 지식의 발전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Oermann, Shaw-Kokot, Knafl, & Dowell 2010; Suh et al., 2007).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은 실천적 특성을 가진 학문으로 간호연구를 통한 간호학 지식체 확립과 간호실무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Lee, Kang, Kim, & Chang, 2011). 이에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을 통해 그동안 발전해온 기본간호학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현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유용한 간호지식을 실무와 이론에 적용하고 발전시켜 과학으로서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도모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학술지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부흥에 발맞추어(Jun et al., 2011;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011) 기본간호학회지 역시 앞으로는 더욱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국내외적으로 지명도 높은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술지 평가항목에 유사전공 학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주요어 : 기본간호학, 간호연구, 연구동향, 연구설계, 연구방법론
* 본 연구는 2011년 기본간호학회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1)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2)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6)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hee@ajou.ac.kr)
8)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9)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성남캠퍼스 교수, 10)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12년 6월 28일 1차 수정일: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16일

보고하는 정성적 평가 영역이 제시되어 있어서(Sohng et al., 2008)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재 논문의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헐 것이다.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eong 등(2001)이 창간호부터 2000년도 까지 분석한 논문이 있으며, Sohng 등(2008)이 2001년도부터 2007년도 논문을 분석한 것이 최종적으로 최근 논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간호학회지 발전을 위한 학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의 기반이 될 것이며 기본간호학 학문의 발달의 위한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분석 대상

기본간호학회지는 기본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기본간호학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를 게재하고 있으며, 연 4회 발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기본간호학회지에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16권 1호-18권 4호)까지 게재된 총 논문 156편이다.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틀은 선행연구(Shin et al., 2010; Sohng et al., 2008)를 기반으로 기본간호학회지에 개재된 논문분석에 적합하도록 본 연구진이 개발한 것으로, 크게 게재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등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은 논문의 유형, 연구 유형, 연구주제, 연구참여자 특성, 게재논문의 윤리성 분석을 포함하였다. 연구주제는 간호의 기본개념, 간호과정, 건강사정, 산소화요구, 영양요구, 배설요구, 개인위생요구, 체온유지요구, 활동과 운동요구, 안위요구, 안전요구, 성요구, 감염관리, 투약간호, 상처간호, 임종간호, 수술주기간호, 대체보완요법, 간호교육, 건강증진, 사회심리적 요구, 기타 22가지 하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게재논문의 윤리성은 분석대상 논문에서 구두동의, 서면동의, 조사기관장 승인, 기관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통과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중복 수행 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가장 높은 수준은 IRB, 다음은 조사기관장 승인, 서면동의, 구두동의 순) 코딩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양적연구의 분석은 연구 설계, 개념적 기틀, 대상자 산정기준, 표본수 산출기준, 자료 수집 방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도구사용 허가, 자료 분석 방법을 포함하였다. 이 중 신뢰도는 기존연구와 해당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기술하였을 경우에 신뢰도를 제시한 것으로 구분하였고, 타당도는 사용된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성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 제시한 것으로 하였다. 한편, 양적연구의 분석시에는 추가적으로 실험연구에서 적용된 실험중재를 분석하였고, 실험중재는 중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셋째, 질적연구는 연구 설계, 철학적 배경의 진술, 연구자의 훈련, 자료 수집 방법, 연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게재된 논문의 분석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일차적으로 각 연구자가 논문을 일차분석을 하였으며, 이후 연구책임자가 일차분석 결과를 검토하면서 재분석하여 일차분석과의 일치도를 확인하였으며,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 및 수정함으로써 분석을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

논문 유형은 연구비 수혜 논문이 46.2% (72편)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논문이 38.4% (60편), 학위논문이 15.4% (24편)이었다. 연구유형은 양적연구가 90.4% (141편)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는 8.3% (13편), 연구동향분석과 같은 이차분석 연구가 1.3% (2편)이었다. 기본간호학회지에서는 연구주제를 22가지 하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호의 기본개념이 16.7% (26편)로 가장 많았고, 간호교육 15.4% (24편), 사회심리적 요구 14.7% (23편), 기타 10.9% (17편)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의학적인 질병이 없는 건강인이 32.7% (51편), 환자군이 35.3% (55편), 의료인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30.8% (48편)이었다. 건강인을 생의주기별로 분류하면 성인이 28편, 노인이 14편, 아동 및 청소년은 6편순이었다. 환자군에서는 성인이 38편, 노인은 13편, 아동 및 청소년 1편이었다. 의료인 중

에서는 간호사 32편, 간호학생 및 간호대학 교수가 13편과 1편이었다. 논문에서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해 서면동의서를 받은 논문이 31.5% (49편)로 가장 많았으며, IRB에서 절차를 밟아 연구 수행의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25.6% (40편)이었으며, 구두동의만을 서술한 논문은 17.3% (27편)이었다. 반면에 연구 윤리에 관해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논문은 7.7% (12편)이었다(Table 1).

양적연구 분석

Table 1. Overall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N=15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Manuscript type	Funded research		72	46.2
	Self-funded research		60	38.4
	Thesis or dissertation		24	15.4
Research type	Quantitative research		141	90.4
	Qualitative research		13	8.3
	Studies based on secondary data		2	1.3
Research topics	Basic concepts in nursing		26	16.7
	Health assessment		5	3.2
	Oxygen		2	1.3
	Nutrition		4	2.6
	Elimination		1	0.6
	Self-care and hygiene		2	1.3
	Activity and exercise		7	4.5
	Comfort		11	7.1
	Safety		4	2.6
	Sexuality		1	0.6
	Infection control		9	5.8
	Medication		2	1.3
	End-of-life care		1	0.6
	Perioperative nursing		2	1.3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6	3.8
	Nursing education		24	15.4
	Health promotion		9	5.8
	Psycho-social needs		23	14.7
	Others		17	10.9
Research participants	Well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6	3.8
		Adults	28	17.9
		Elderly	14	9.0
		Overall aged people	3	1.9
		Subtotal	51	32.7
	Ill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1	0.6
		Adults	38	24.4
		Elderly	13	8.3
		Overall aged people	3	1.9
		Subtotal	55	35.3
	Health care provider	Nurses	32	20.5
		Nursing students & Professors	14	9.0
		Others	2	1.3
		Subtotal	48	30.8
	Documents	Papers	2	1.3
Ethical consideration	Verbal consent		27	17.3
	Written consent		49	31.5
	Organization confirmation		28	17.9
	Institutional Review Board		40	25.6
	Not reported		12	7.7

총 141편의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설계, 개념적 기틀 제시여부, 대상자 산정기준, 표본수 산출기준, 자료 수집 방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보고, 도구사용에 대한 허가, 자료 분석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설계는 총 141편 중 조사연구가 67.3% (95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실험연구로 28.0% (40편)이었다. 조사연구에서는 횡단적 조사연구가 63.8% (90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종적 조사연구는 3.5% (5편)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유사실험연구가 23.1% (33편)로 가장 많았으며, 원시실험연구(단일군 전후설계)가 1.4% (2편), 순수실험연구가 3.5% (5편)이었다. 141편 중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연구는 단 1편도 없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61.0% (86편)이었으며,

Table 2.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Research (N=14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Design	Experimental study	True experimental study	5	3.5
		Quasi experimental study	33	23.1
		Pre-experimental study	2	1.4
	Survey	Cross-sectional study	90	63.8
		Longitudinal study	5	3.5
	Methodological study		6	4.3
Conceptual framework	Presented		0	0
	Not presented		141	100.0
Criteria for participants	Reported		86	61.0
	Not reported		55	39.0
Criteria for sample size	Reported		89	63.1
	Not reported		52	36.9
Data collection method*	Questionnaire		128	90.8
	Physiological measure		32	22.7
	Interview		2	1.4
	Observation		2	1.4
	Chat review		4	2.8
	Others		1	0.7
Reliability of instrument	Reported		110	78.0
	Not reported		31	22.0
Validity of instrument	Reported		55	39.0
	Not reported		86	61.0
Permission for instrument use	Reported		15	10.6
	Not reported		126	89.4
Data analysis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140	99.3
	Parametric statistics	t-test	103	73.0
		ANOVA	65	46.1
		Repeated measure ANOVA	5	3.5
		ANCOVA	7	5.0
		Correlation	65	46.1
		Multiple regression	41	29.1
		Path analysis	1	0.7
		Factor analysis	1	0.7
	Non parametric statistics	Chi square	50	35.5
		Fisher's exact	12	8.5
		Mann-Whitney	7	5.0
		Kruskal Wallis	2	1.4
		Wilcoxon's	2	1.4
	Others		1	0.7

*=Multiple responses, † =Single group pre-post test.

Table 3. 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N=4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Intervention sources*	Education(individual, group)	17	42.5
	Exercise	11	27.5
	Nursing therapeutics	8	20.0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8	20.0
	Support & counseling	7	17.5
	Rehabilitation	2	5.0
	Others	3	7.5

*=Multiple responses

Table 4.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N=1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Design	Phenomenology	4	30.8
	Grounded theory	1	7.7
	Narrative analyss	1	7.7
	Focus group	2	15.4
	Q-Methodology	5	38.5
Philosophical background	Presented	4	30.8
	Not presented	9	69.2
Researcher training	Presented	4	30.8
	Not presented	9	69.2
Data collection method*	In-depth interview	13	100.0
	Questionnaire	5	38.5
Reliability	Reported	6	46.2
	Not reported	7	53.8
Validity	Reported	6	46.2
	Not reported	7	53.8

*=Multiple responses

표본 수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63.1% (89편)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가 90.8% (12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리적 측정이 22.7% (32편), 의무기록지 검토가 2.8% (4편), 면담과 관찰, 논문분석이 각 1.4% (2편)이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에 대하여 보고한 논문이 78.0% (110편), 보고하지 않은 논문이 22.0% (31편)이었으며, 도구의 타당도에 대하여 보고한 논문이 39.0% (55편), 보고하지 않은 논문이 61.0% (86편)이었다. 또한 도구 사용에 관해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10.6% (15편) 뿐이었다.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99.3% (140편) 양적 연구들에서 평균값 및 표준편차와 빈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는 t-test 73.0% (103편), Analysis of variance (ANOVA) 46.1% (65편), Correlation 46.1% (65편), Multiple regression 29.1% (41편),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5.0% (7편), Repeated measure ANOVA 3.5% (5편) 순이었다.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Chi-square test 35.5% (50편)로 가장 많았으며, Fisher's exact test 8.5% (12편), Mann-Whitney test 5.0% (7편) 순이었으며, Kruskal Wallis, Wilcoxon's test 등이 있었다(Table 2).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 40편을 대상으로 중재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0편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중재는 개인 혹은 집단 교육으로 총 42.5% (17편)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동 27.5% (11편), 간호처치 20.0% (8편), 대체보완요법 20.0% (8편), 지지와 상담 17.5% (7편) 순이었다.

질적연구의 분석

질적연구는 총 13편이었으며, 연구설계는 현상학적 연구 30.8% (4편), Q 방법론 38.5% (5편), 포커스 그룹 15.4% (2편)순이었다. 그밖에 근거이론 방법이 1편, 내러티브 분석 1편이었다.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논문이 30.8% (4편)이었으며, 연구자 훈련에 관해 기술한 논문이 30.8% (4편)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 면담이 100.0% (13편)로 가장 많았으며, Q 방법론 연구인 경우 면담을 통해 P표본을 선정한 뒤 설문지를 이용하여 Q표본을 대상자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보고한 논문은 46.2% (6편)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논문의 특성과 논문을 다시 양적 및 질적 연구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년간 게재된 논문은 총 156편으로 연간 평균 52편이었다. 이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Sohng 등(2008)의 논문에서 제시한 연간 논문 편수 42.86편과 비교시 22%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연구비 수혜논문이 46.2%로 창간호부터 2000년도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Jeong 등(2001)에서의 2.8%와 2001년도부터 2007년도 게재논문을 분석한 Sohng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30.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호학의 대표저널이면서 2008년도부터 SSCI 등재된 대한간호학회지의 3년간 게재논문을 분석한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35.6%과 비교시에도 높은 비율이다. 이는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양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연구유형에서는 양적연구가 90.4%, 질적연구는 8.3%, 연구동향 등을 파악한 이차분석연구가 1.3%으로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질적연구는 8.3%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Sohng 등(2008)에서 보고한 질적연구 6.0%보다는 다소 증가한 결과이지만 Jeong 등(2001)에서 보고한 질적연구 8.1%와는 비슷하며 최근 2년간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Shin 등(2010) 연구의 질적연구 비율 1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본간호학 학문의 실증적이고 근거중심이 강조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양적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질적연구는 연구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간호학 지식개발과 인간행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Lee et al., 2011), 질적연구가 많이 게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동향을 파악한 이차연구는 단 2편뿐으로 이는 7년간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Sohng 등(2008)의 연구에서도 종설 2편을 제외하고는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과 같은 연구는 없었다는 점과 비슷하나 2000-2006년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학술지를 분석한 Mantzoukas (2009)의 연구에서 보고한 10%보다 매우 저조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연구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수집, 분석, 평가, 합성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이며 오늘날 연구의 증가와 함께 임상실무자들이 근거에 기반을 둔 최선의 의사결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Jeong, Cheon, Hwang, Kim, & Ha, 2011; Oermann et al., 2010)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가 좀 더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본간호학회지에서는 연구주제를 22가지 하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호의 기본개념과 간호교육, 사회심리적요구 관련 연구는 많이 게재되고 있었으나 배설요구, 성요구와 임종간호 관련 연구는 단 1편이었으며 간호과정, 체온유지요구, 상처간호 관련 연구는 단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주제가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5.3%, 의학적 질병이 없는 일반인이 32.7%, 의료인 대상 연구는 30.8%으로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게재되고 있었다. 이는 Jeong 등(2001)의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환자 대상 연구였던 것에 반해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3년간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3%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에서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IRB에서 절차를 밟아 연구 수행의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25.6% 이었는데 이는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보고한 7.7%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최근 연구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실정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해 서면동의서를 받은 논문이 31.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연구 윤리에 관해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논문은 7.7% 라는 점을 볼 때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회 차원의 교육 및 노력과 IRB 심의 논문만을 투고 받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양적연구 논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141편 중 조사연구가 67.3%, 실험연구가 28.0%으로 Sohng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조사연구 73.2%와 실험연구 23.7%와 비교시 실험연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 대부분이 유사실험연구로 순수실험연구는 5편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7년간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했던 Sohng 등(2008)의 연구에서 순수실험연구가 전혀 없었던 점과 비교시 그동안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나 2000-2006년 상위 10위의 간호학술지를 분석한 Mantzoukas (2009)의 연구에서 순수실험설계와 유사실험설계의 비율이 비슷했다는 점과 비교시 순수실험연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연구 40편을 대상으로 중재분석을 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된 중재는 개인 혹은 집단 교육으로 42.5%에서 사용되었으며, 운동 27.5%, 간호처치 20.0%, 대체보완요법 20.0%, 지지와 상담 17.5% 순이었다. 이는 Shin 등(2010)의 연구에서도 교육과 운동관련 중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과 유사하나 1995년에서 2008년까지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Choe 등(2010)의 연구에서 간호기술 중재가 가장 많았다는 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양적연구에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을 단 1편도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인 Sohng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3%보다도 적어진 것이며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30.7%이었다는 점과 비교시 매우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제적인 간호학술지에서는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Anderson et al., 2003) 개념적 기틀이 연구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상과 관련된 개념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제공하며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지식체 개발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Lee et al., 2009)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60.8%이며 표본수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62.2% 이었다. 이는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표본 수 산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이 49.7%였다는 점과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불충분한 표본의 크기는 집단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나 관계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의 능력인 검증력에 의해 영향을 주며 적절한 검정력을 가지지 못한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을 저하시키므로 표본의 크기 타당성은 자료수집 전부터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Lee, Lee, Song, & Ahn, 2006). 이에 기본간호학회지에서도 논문평가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정도의 논문에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가 89.5%으로 양적연구 중 조사연구 비율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에 대하여 보고한 논문이 76.9%, 도구의 타당도에 대하여 보고한 논문이 38.5%이었다. 특히 신뢰도가 높은 도구는 연구의 검증력을 높여주어 연구모집단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연구수행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논문 심사과정시 반드시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또한 도구 사용에 관해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10.5%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 저작권 등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하는 심사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술통계 분석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t-test 72.0%, ANOVA 45.5%, Correlation 45.5%, Multiple regression 28.7%, ANCOVA 4.9%, Repeated measure ANOVA 3.5% 순이었다. 이는 Sohng 등(2008)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자료분석방법보다 고급통계분석방법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는 총 13편으로 Q 방법론 38.5%, 현상학적 연구 30.8%, 포커스 그룹 15.4% 순이었다. 그밖에 근거이론 방법이 1편, 내러티브 분석 1편으로 다양한 질적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적연구 중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논문이 30.8% 으로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논문이 60.7%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또한 연구자훈련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4편뿐이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보고한 논문은 6편뿐이었다. 질적연구의 단점이 주관성이므로 연구자료 수집과정의 정확한 보고와 분석방법, 연구자의 자격과 연구현상에 대한 가정, 편견, 그리고 탐구의 질,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정확히 주제를 도축하였는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심사위원 교육 등을 통한 학회의 계속적인 질적 관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기본간호학회지는 창간 후 계속적인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한 지식을 발표하는 장이며 활발한 지식을 나누는 장이 되어왔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하여 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간호학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기본간호학회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게재된 156편의 논문으로 연구진들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서 전체적인 논문의 특성 및 양적, 질적연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유형은 양적연구가 대부분으로 질적연구나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연구개념에서는 간호의 기본개념과 간호교육관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는 건강인, 환자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양적연구 대부분은 조사연구로 실험연구는 40편밖에 되지 않았다. 실험연구 중 순수실험연구는 5편으로 연구설계가 잘 이루어진 중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양적연구 중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표본수 산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의 수가 증가하여 기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연구 중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단 한편도 없었으며 IRB에서 절차를 밟은 논문이나 연구도구 사용허가에 대해 기술한 논문의 수가 여전히 적어서 기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간호학회지와 간호학문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질적연구 및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의 수행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 기틀 제시, 도구의 신뢰도와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83

타당도 제시, 대상자 선정기준과 표본의 수 타당성 제시와 은 심사항목을 강화하여 게재논문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회지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순수실험설계 혹은 체계적인 연구방법에 근거한 실험연구 등을 통하여 간호학문의 질적인 향상 및 근거기반간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IRB 심의 및 도구 허가 여부를 제시하도록 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derson, E., McDonald, D. D., Mikky, I., Brewer, T., Koscizewski, C., LaCoursiere, S., Andrews, L., & Delaney, C. (2003). Health care implications and space allocation of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Nursing Outlook, 51*, 70-83.

Choe, M. A., Jeong, J. S., Lim, K. C., Kim, J. H., Kim, K. S., Kwon, J. S., et al. (2010). Research trend of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5-2008.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 95-105.

Jeong, I. S., Kang, K. S., Kim, K. H., Kim, K. S., Kim, W. O., Byun, Y. S., et al. (2001). The research trends in fundamental nursing: Based on the analysi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8*, 132-146.

Jeong, I. S., Cheon, S. S., Hwang, S. K., Kim, D. H., & Ha, J. Y. (2011). *Systemic reviews and meta-analysis*. Seoul: Soomoonsa.

Jun, M., So, H. S., Choi, K. S., Chung, B. Y., Ryu, E. Lee, D. S., et al. (2011).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ree nursing journal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11*, 163-170.

Lee, E. O., Yim, N. Y., Park, H. A., Lee, I. S., Kim J. Y., Bae, J. L., et al. (2009).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Soomoonsa.

Lee, H. J., Lee, E. H., Song, R. Y., & Ahn, S. H. (2006). *Research methods for health care providers*. Seoul: Hyunmoonsa.

Lee, W. H., Kang, K. A., Kim, D. S., & Chang, S. O. (2011).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Seoul: Hyunmoonsa.

Mantzoukas, S. (2009).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 479-489.

Oermann, M. H., Shaw-Kokot, J., Knafl, G. J., & Dowell, J. (2010). Dissemination of research into clinical nursing literatu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 3435-3442.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139-149.

Sohng, K. Y., Kim, J. I., Choi, D. W., Kim, A. K., Chaung, S. K., Kim, K., et al. (2008).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Based on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from 2001 to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 252-273.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013-1019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011). Editor's workshop for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s. Seoul: KOFST.

Trends in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9-2011*

Kim, Kyunghee[1] · Chang, Sung Ok[2] · Kang, Hyun-Sook[3] · Kim, Keum Soon[4] · Kim, Jong Im[5]
Kim, Hwasoon[6] · Park, Jin-Hee[7] · Eom, Mi Ran[8] · Won, Jong-Soon[9] · Youn, Mi-Sun[10] · Lee, Ogcheol[1]

1)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2) Korea University, Professor
3)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4)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5)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6) Inha University, Professor
7) Ajo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8) Mokpo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9) Eulji University, Professor, 10) Baekse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s in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from 2009 to 2011. **Methods:** A total of 156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11 were reviewed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Results:** Quantitative studies accounted for 90.4% and qualitative studies, 8.3%. The research designs for the quantitative studies were experimental, 28.0% and survey, 63.8%. IRB approval was received for only 25.6% of the studies and 61.0% of studies presented participant criteria.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in 90.8% of studies. Individual or group education was the most frequent intervention in the experimental studie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mor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ith a low risk of bias are needed to support greater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Considering the low rate of ethical consideration, it is important that stricter application of research methods needs to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quality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Key words : Nursing research, Journal article, Research methodology, Research desig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in-Hee*
Ajou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Gyeonggi, Suwon, Yontonggu, Woncheondong San 5
Tel: 82-31-219-7019 FAX: 82-31-219-7020 E-mail: jhee@ajou.ac.kr